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진짜사나이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2년 4월 27일(수요일) / 장 소 : CLC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책 이름: 골목의 전쟁 &lt;기회로 위장한 위기&gt;  주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p> <p>1. 토론 시작</p> <p>책에서도 과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에 관해 토론을 하고 그 영향을 예시로 들었다. 우리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러시아가 미국, 사우디 이렇게 세계 3대 기름 생산국이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러시아의 석유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기름 유통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가가 상승하였고 현재는 제재 전보다 400원 가량 상승하였다.</li> <li>- 또한 식품 가격도 상승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해외에서부터 식재료 수입이 어려워지고 시장 경제도 불안해지고 있다.</li> <li>-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금리가 상승 중,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들은 수요는 많지만 생산이 적어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그 이유로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하는데 물가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li> <li>• 김**: 기름이 받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명태나 대구 같은 수산물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것으로 손실을 많이 본 기업들도 생겼다. 또한 러시아가 밀의 최대 생산국가 중 하나라 빵 등의 밀요리도 가격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식재료의 값도 오르고 있다.</li> <li>- 추가로 인도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던 나라이지만 기름값 상승으로 찜요리로 변화하고 있어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다.</li> <li>• 왕**: 앞선 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름 값과 음식값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 두 사람에 이야기에 추가로 붙이면 우리나라도 개발 도상국과 같이 스테그플레이션처럼 극단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완화된 슬로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가 강화되어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러시아의 투자 위축(맥도</li> </ul>							

날드 철수, 피파와 UEFA 러시아 퇴출)등의 경제적, 문화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 또 인도는 요리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도 기름으로 하는 음식이 많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 제재를 들어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영향의 강도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 김\*\* : 중국은 러시아 전쟁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둘 중 하나의 편을 든다면 다른 쪽은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근데 병합이 안 되어도 문제인 것이, 중국도 러시아랑 같이 병합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에 병합이 실패하면 불리해지지만 국제 정서상 러시아와 우호국의 뜻을 나타내지 못함

- 코로나로 인해 기름은 이미 오르던 상태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11.6%를 생산하는 국가이기에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 러시아는 니켈 생산에 11.2%의 생산을 책임짐(러시아는 생산을 늦게 시작해 보유량이 많음),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데 전기차 회사와 시장에 많은 영향이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 타격),

- 코로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무역로가 막히자 무역에 큰 차질이 발생해 물류난이 발생하여 코로나 인플레이션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

- 한국에 영향, 러시아 관련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및 유통하던 사람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 2. 토론 정리

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이외의 나라가 단결하여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우리와도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두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김\*\* :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하지만 실제 겪어보니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타격이 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니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왕\*\* : 이번 토론을 통해 같은 전쟁이라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전쟁에 대한 영향의 차이, 그 전쟁에 속한 나라들의 우호관계에 따라서도 그 상이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같은 현상에도 다

른 반응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2년 4월 27일

참가자대표 : 김\*\*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진짜 사나이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2년 05월 11일(수요일) / 장 소 : 학생생활관 6관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왕**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책 :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시미 순야-</p> <p>주제 : 잘 나가던 일본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이유 혹은 시사점</p> <p>김**)</p> <p>플라자 합의가 일본 쇠락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절하된 엔화로 인해 무역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모으던 일본은 미국의 경제까지 타격을 주게 되어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게 되자 이를 막고자 미국은 평가절하된 엔화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플라자 합의를 맺어 일본은 더 이상 무역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없게 되었고, 당장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였고, 안전자산을 원하게 되어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 경제회복이 느려져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p> <p>김**)</p> <p>부동산과 주식 값 폭락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된 일본은 그 여파가 국민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으며, 동시에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인사건, 미야자키의 여아 납치살해 사건 등 흉흉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을 집어 삼켰다. 경제가 몰락함에 따라 부정적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까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그대로 움켜쥔 채 안정성만을 갈구하여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아 경제회복이 더더 현 상황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역시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땅값, 집값과 물가는 치솟으며, 율로족과 같이 사치와 향락,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많은 돈을 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옆 나라인 일본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현재 일본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반면교사 삼아 현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p>							

왕\*\*)

경제가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갑작스런 경제적 타격에 수중에 있던 돈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부동산과 주식을 미친 듯이 처분하기 시작하여 부동산과 주식 값이 폭락하였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회사들은 정리해고를 시작했으며, 사회에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학생들에게는 더 고된 공부를, 노동자들에게는 더 고된 노동을 적은 대가를 주며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한순간에 길가에 나앉을 수 있음을 깨달은 일본 국민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기존 소비패턴에서 저축을 하고 절약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샌가 자신감을 사라지고 서로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장 경제를 활발히 만들기 위해 화폐를 대량 발행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끌어 갈 젊은 인재가 별로 없어 경제 회복은 더더욱 느려졌고, 심지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회복이 거의 동결에 가까워졌다. 물론 지금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과거 일본이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한참 멀은 수준이다. 일본 쇠락의 절차를 이 책을 통해 목도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겹쳐보았다. 비슷한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한국 역시 일본처럼 쇠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렇기에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

한때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었던 일본은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의 대표 주자였다. 사치품들을 끌어모으거나 해외의 건물 및 땅을 매입하여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곤 했다. 이렇듯 일명 '오카네모치' 일본인들에게는 부와 자부심이 있었고, 기술력도 세계수준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래의 선도주자였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 한 순간에 빚을 갚아야 했던 일본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값 폭락이 이어졌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며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시장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한 일본 국민에게 소비촉진이 될 리가 없었다. 무제한 발행된 화폐는 그저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들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경제회복이 더욱 더뎠으며, 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금 일본의 경제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소비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는 등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장기간 경제 정책이 일본에게 있어서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일본과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일본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05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진짜사나이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8일(수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 '베조노믹스' -브라이언 두메인-</p> <p>주제 : 꾸준히 변화하는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p> <p>서로 전공이 다른 4명이 자신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위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았다.</p> <p>왕** : 경영학과 시점</p> <p>아마존(기업)은 사업 확장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이 취했던 입장들, 장기적 관점에서 떠오르는 사업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우주, 드론 배달 등에 적극적이다.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여 타기업에 상품과 주식을 팔고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 아마존의 웹서비스를 빌려주고 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마존의 사업 영역 확장과 적절한 경영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복수전공으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을 결합하여 4차 산업 정보를 모으고 경영과 소프트웨어, 공학 등 그 사이에 접점이 되는 직업을 찾아보거나 개척로를 찾아야 한다.</p> <p>핵심 :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에 앞서가야 한다."</p> <p>김** : 일본학과 시점</p> <p>대한민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 부동산, 주식 폭등,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동시에 무기력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마치 최근 버블경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다. 일본이 예전 같진 않으나 영향력이 큰 나라이고, 이웃 나라이면서 강대국이기에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회복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일본을 공부해야 한다.</p> <p>또한 일본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는 동시에 일본의 정치, 경제, 역사 등을 공부하여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유치 및 청년 실업 해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p>							

**핵심 :** “일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

**김\*\* :** 빅데이터 전공 시점

본인이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프론트엔드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입력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자들은 아주 깔끔한 레이아웃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보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가 마주 보는 인터페이스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프론트엔드’라고 부른다. 프론트엔드는 사용하기 쉽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을 때만 사용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고로 개발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상된 기술 스택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다. 개발 분야에서도 최전선이라 모든 개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의 변화를 맞이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에 대한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핵심 :** “자신이 속한 분야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김\*\* :** ROTC(안보학) 시점

군필자에게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6.25 수통이 많이 떠오른다고 한다. 군대는 상식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물품을 가장 빨리 보급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노후화된 물품이 많고 폐쇄적인 환경 탓에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폐쇄적임과 동시에 끊임없는 발전을 하는 곳이다.

현재 국방개혁 일환으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AI 드론보트, 무기와 최신기술을 결합한 첨단무기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보라매, AI 드론보트, 워리어플랫폼 등 무기와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 시키려는 국제 정서에 맞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는 군대를 제대로 알려면 국내외 뉴스를 보고 국제 정서를 파악한다. 또한 영어를 공부해서 최신 기술을 접할 때 용이하도록 한다.

**핵심 :** “최신기술 알기, 국제정서 빠르게 파악하기, 영어 공부하기”

2022년 5월 18일

참가자대표 : 김\*\*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진짜사나이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2년 5월 25일(수요일) / 장 소 : CLC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b>책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b></p> <p>※ 토의 전 배경지식</p> <p><b>디스토피아</b> 또는 <b>안티 유토피아</b>(영어: dystopia 또는 anti-utopia)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공동체 또는 사회(community or society)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사회는 주로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진다.</p> <p>토론 주제 :</p> <p>1. 사회 전체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그들 자체가 행복하고 잘 굴러간다면 괜찮은가?</p> <p>찬성 : 김**, 김**</p> <p>반대 : 왕**, 김**</p> <p><b>김**, 김**(찬성)</b></p> <p>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의식주를 해결하여 본인의 만족감과 충분한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사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멋진 신세계 안에서 그들 자체는 항상 행복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던 제 3자가 개입해서 통제를 막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거대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p> <p><b>왕**, 김**(반대)</b></p> <p>우리는 윤리를 저버리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 책에서 모든 인원은 행복하다. 불행이란 것이 없는 사회에서 행복이 중요할까? 불행이 없는 사회에선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평범함이다.</p> <p>멋진 신세계를 읽으면 알 수 있는 점은 이 세계의 사람은 계급이 높던 낮던 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행복하도록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인</p>							

공처럼 돌연변이가 나오면 분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 모종의 이유로 통제가 사라진다면 대혼란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하층민이 평생 노동하는 이유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통제되면서 행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멋진 신세계는 소수의 이득을 위한 통제, 독재이다. 인권유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자유토론

김\*\* : 멋진 신세계 안의 사람들은 거대한 통제하에서 살고 있다.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가 각자의 운명에 수긍하고 그와 맞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처럼 통제가 풀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돌연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돌연변이는 거대한 통제하에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회의감에 젖는다. 이처럼 만약 모종의 이유로(천재지변) 통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혹은 소수의 돌연변이가 나타나 멋진 신세계를 부수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면 사회와 다수의 사람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김\*\* : 모종의 이유로 통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왕\*\* : 모종의 이유로 통제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역사를 봐오면 안정적인 시기가 늘 있었다. 그 시기가 쪽 이어지지 못한 건 그 사회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멋진 신세계의 사회에서 순응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만 있을 것이다.

김\*\* : 멋진 신세계에서 돌연변이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들은 인격까지 통제되고, 아무런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돌연변이만 의구심을 품는다. 돌연변이는 소수이고 다수는 소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워서일 수도 있으나,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말이 있듯이 뜻이 맞고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이다.

김\*\* : 우리가 어떤 다른 사회를 보았을 때, 우리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수이고, 정상인 사람이 소수라고 하여도 그 사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책 속의 돌연변이는 비정상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 혹은 국가 취급하지 않는다. 북한과 멋진 신세계의 차이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이다. 북한에선 고위층을 위해 하층민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멋진 신세계 주민처럼 행복하지 않다. 반면, 멋진 신세계에선 노동 계층이 행복하다. 거대한 통제는 멋진 신세계를 유지하게 한다. 다른 이들 시선에서는 멋진 신세계가 비정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일생을 사는 주민들은 행복하다. 따라서 정상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돌연변이는 소수이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멋진 신세계는 큰 혼란을 맞이할 것이다.

왕\*\* :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지동설을 외쳤고,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고 하였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이단 취급받는 소수였지만 결국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주장이 맞았고 인류는 더 넓게 뻗어갔다. 현재는 멋진 신세계가 거대한 통제 아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멋진 신세계는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

2022년 5월 25일

참가자대표 : 김\*\*